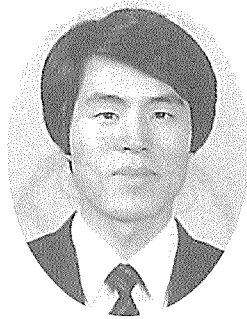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문 선 목

〈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행정사무관 〉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73년 제1차 석유폭동 이후 전문가들이 국제원유가격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정확히 설명·예측할 수 있는 모델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본적인 석유수급요인보다는 오히려 석유산업 외부에 존재하는 국제정세변화가 국제유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가분석모델들이 사후에 유가요인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도 원유의 수요·공급 및 기타의 외생적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하나의 경제적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유가예측과 정책대응을 위하여 이러한 변수들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유

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공급측면의 요인, 수요측면의 요인, 기타 외생적요인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공급측면〉

- OPEC의 석유생산 동향(생산쿼터) 및 가격정책
- 비-OPEC지역의 생산동향
- 산유국의 경제시설 증설에 따른 수출여력 변화
- 산유국의 석유개발·생산능력 확충투자에 따른 중·장기적 공급능력

〈수요측면〉

- 세계 석유수요 추이(개도국 및 선진국)
- 정유공장의 규모증설 및 가동현황(가동율, 유지

- 보수, 고장 등)
- 주요국의 석유재고
- 주요국의 정제마진 변화
- 석유 비수기/성수기 도래여부
- 단기적인 기후변화 (이상기온 등)

<기타>

- 국제정치적 변수 (중동정세, UN의 대이라크 금수 조치 등)
- 국제 투기자금의 동향
- 선물시장 동향 (미래예측 : Backwardation 및 Contango 상황)
- 각 석유제품의 가격변동 추이
- 주요 유종간 가격차이 (WTI, Dubai, Brent)

가. 공급측면의 요인들

- OPEC의 석유생산 동향(생산쿼터) 및 가격정책

무엇보다도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OPEC산유국의 생산 및 가격 움직임이다. OPEC의 11개 산유국은 전세계 석유부존량의 77%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석유공급량의 39.4%(96년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OPEC은 1~2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유가정책과 생산쿼터정책을 통하여 국제석유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OPEC은 87년이후 바스켓가격 (Basket Price)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Arabian Light*(사우디아라비아), *Dubai*(아랍에미리트) 등 7개유종의 현물평균가격으로 산정되는 바스켓가격은 90.8월 18불/B에서 21불/B로 인상된이래 OPEC가 달성해야 하는 기준가격으로서의 역할 및 국제유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OPEC의 기준 바스켓가격이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점이 있으나, 96년 OPEC의 실제 바스켓가격이 20.29불/B로서 95년의 바스켓가격인 16.86불보다 훨씬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OPEC가 기준 바스켓가격 달성을 위해 생산량제한정책을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국제유가의 기준이 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OPEC은 유가유지를 위해 생산량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유가유지와 석유공급량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90.8 걸프사태로 초래된 초기 석유생산감소와 유가상승에 대응하여 사우디 등 주요국의 쿼터를 크게 늘림으로써 세계석유시장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96.6 이후 OPEC의 쿼터는 2,503.3천배럴/일인데 이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 비-OPEC지역의 생산동향

비-OPEC지역의 석유공급이 60% 이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북해, 라틴아메리카, 서아프리카 등 비-OPEC지역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생산량 통제를 위한 결속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들지역의 생산량 변화가 유가등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구소련의 경우 체제전환의 와중에서 급격한 생산감소를 보여 왔으나 서방의 투자유치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경제개혁이 본 궤도에 올라가는 2000년대에는 생산량이 회복되고 수출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의 투자·생산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산유국의 정제시설 증설에 따른 수출여력 변화

산유국들은 원유를 채굴하여 수출하는 한편, 자체정유공장을 건설하여 석유제품을 생산, 자국수요에 충당하거나 수출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재 원유의 수출국이지만 국내소비의 증가에 따라 수출여력은 해마다

다 감소하여 21세기 초에는 석유순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바, 국내소비증가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체 정유공장 증설을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산유국의 석유소비증가 또는 정제시설증가로 인한 수출여력 변화도 국제석유시장을 통한 유가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산유국의 석유개발·생산능력 확충투자에 따른 중·장기적 공급능력

석유자원은 중동지역, 특히 페만 5개국(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에 집중(세계 확인 매장량의 64%)되어 있으며, 잉여생산능력 또한 이들 지역에 있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석유수요 증가분은 이들지역의 공급여력에 의해 충족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에서 석유개발과 기존설비의 확장과 개선을 위하여 얼마만한 투자를 하는지가 미래의 석유공급과 국제유가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나. 수요측면의 요인들

○ 세계 석유수요추이(개도국 및 선진국)

세계의 경제성장, 환경문제의 인식에 따른 에너지소비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석유수요의 추이도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높은 경제성장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특성상 석유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하고 국제유가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 국민소득 증대로 석유소비증가 속도가 생산증가속도를 앞질러 '93년 이미 석유순수입국으로 바뀌었다. 한편, 탄소가스배출 규제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와 이에 따른 대체에너지의 사용증가도 석유수요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정유공장의 규모증설 및 가동현황(가동율, 유지보수, 고장 등)

정유공장의 시설확장 및 정기적 유지보수 등으로 인한 가동현황도 국제유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유럽·아시아 지역 정유공장의 정기보수가 매년 1/4분기말부터 2/4분기에 걸쳐 집중되어 있어 이 기간중 원유수요의 감소와 유가하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정유공장도 업체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5~6월에 정기보수가 집중되어 있다.

○ 주요국의 석유재고

세계 주요국의 석유재고도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고수준의 증대는 원충기능을 통하여 유가약세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공급부족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유가에 심리적으로도 약세영향을 미칠 것이다.

○ 주요국의 정제마진 변화

정제마진이 낮아질 경우 정유사의 가동율이 낮아져 원유수요가 줄어들므로써 유가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반대로 유가하락은 제품가격이 일정할 경우 정제마진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또한 "네트백 가격방식(Netback pricing system)" 과도 관련된다. 네트백 가격방식이란 정제제품의 판매가격으로부터 얻는 수익에서 정제비용 및 운송비·보험료를 뺀 수익으로부터 역산하여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하에서는 정제마진의 변화는 국제유가의 등락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게 된다.

○ 석유 비수기/성수기 도래여부

석유에 대해서는 계절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한다. 동절기는 보통 난방유의 성수기이며 하절기는 자

동차 운전수요의 증대로 휘발유의 성수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국제유가가 영향을 받음은 물론이다.

○ 단기적인 기후변화(이상기온 등)

97년초 유럽과 미국에 몰아닥친 갑작스런 한파는 국제유가의 강세를 가져왔다. 계절적인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이상기온 등도 국제유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 기타요인

○ 국제정치적 변수(중동정세, UN의 대이라크 금수조치 등)

이라크내 쿠르드족의 동향, 사우디 Fahd국왕의 거취 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의 관계 등 중동정세에 따라 국제유가는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사우디의 Fahd국왕은 친서방 온건노선 아래 장기적 석유수익 극대화를 위해 안정적인 유가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증산지향등 온건한 석유정책을 펴왔는데, 최근 고령 및 신병문제까지 겹쳐 장래 후계구도와 관련 중동지역 및 세계석유시장에 불안요인으로 내재되어 있다.

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후 UN의 대이라크 석유금수조치가 부분해제되어 96년 12월 이라크의 원유수출이 부분재개 (97년 6월까지 20억불 한정)되었는 바, 향후 이라크의 석유금수 추가해제여부에 따라 국제유가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국제 투기자금의 동향

국제외환시장, 증권시장, 석유시장에 걸쳐 투기자금의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97년 1월초에 국제석유시장

에 투기적요인이 가세하여 유가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WTI 석유선물거래의 규모는 연간 약 1,300억불에 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중에 현물거래화되는 것은 2%에 불과하고 나머지 98%는 청산되므로(Paper 거래) 투기자금의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 선물시장 동향 (미래예측 : Backwardation 및 Contango 상황)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선물시장의 가격이 향후 국제유가 예측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선물시장에서 장래가격이 현재보다 낮아지는 Backwardation 상황이라면 향후 국제유가는 내릴 가능성이 높고, 장래가격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Contango 상황이라면 향후 국제유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각 석유제품의 가격변동 추이

각 석유제품의 가격변동은 원유수요의 변화, 정유사의 가동율변화, 정제마진을 변화 등을 통하여 국제원유가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 주요 유종간 가격차이(WTI, Dubai, Brent 등)

WTI, Brent, Dubai 등 각 유종별 가격차이도 유가수준과 관련이 있다. 경험적으로 보면 유가가 강세를 보일 때에는 유종간 가격차이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의 특정한 이유로 WTI가 가격이 상승하여 Dubai 가격과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면 여타유종의 가격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